

넓은 이론에 정면으로 도전한 젊은 패기

한국예술연구소 연구원
이영미씨가 뽑은 조동일의
《문학연구방법》



“구체적인 사실에서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추상적 질문과 답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책이죠. 조선생님의 특성과 스타일이 가장 잘 드러난 만큼 논쟁의 여지도 많은 책이죠.”

한국예술연구소 연구원 이영미씨(39)가 조동일 교수의 책과 만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다. 본디 그는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논리적인’ 소년이었다. 뒤늦게 열병처럼 읽은 ‘정신의 사춘기’ 덕분에 국문학을 전공하게 됐다. 하지만,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원로 학자들의 반복적인 강의와 별반 논쟁없는 학문풍토 탓에 문학이 따분하고 지루해졌다.

“바로 그때였어요.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을 가진 30대 젊은 연구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서구 이론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면서도 자신만의 역사·사회의식으로 문학을 분석했죠. 특히 조동일 선생님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가리지 않고, 기존의 학설을 뒤엎곤 했어요. 그제서야 문학의 재미가 어떤 것인지 느꼈죠.”

그때 만난 조교수의 책 가운데 그가 가장 인상깊게 읽은 책이 바로 《문학연구방법》(지식산업사)이다.

“구체적인 사실에서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추상적 질문과 답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준 책이죠.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해 논리적으로 문학을 추상화했다고 할까요. 조선생님의 특성과 스타일이 가장 잘 드러난 만큼 논쟁의 여지도 많은 책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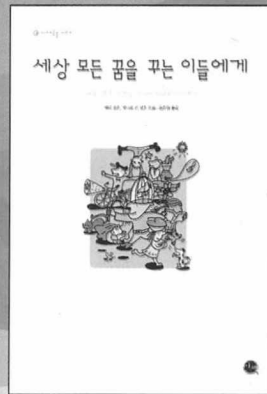
그는 이 책을 ‘반론을 제기하는 재미’로 읽었다. 가장자리가 누르고 너털너털해진 책에는 여기저기 밑줄이 쳐져 있고, 그 옆에는 지은이의 주장과 다른 그의 생각들이 적혀 있다. 자신이 새롭게 고친 도표도 눈에 띈다.

“지금 보면 다소 도식적인 면도 있지만, 당시로서는 학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그때부터 비로소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가 조교수에게 배운 것은 또 있다. 문학의 범위를 시·소설뿐 아니라 판소리·민요 등 구비문학에까지 확대해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런 깨달음은 그가 지난 10여년 동안 해온, 대중예술에 대한 학문적 연구로 이어졌다. 마당극이나 트롯 등의 대중가요가 그에게 현대의 구비문학인 셈이다.

“생각해보니 새로운 주장을 펼친 조선생님 세대는 4·19를 겪었더라구요. 5·18을 경험한 세대로서 어떤 새로운 주장을 펴야 하는지가 저의 고민입니다.” - 김정은 기자

도서출판 이채에서 여러분께 **꿈을 팔러드웁니다**
세상 모든 꿈을
꾸는 이들에게



값 8,000원

이 책에 실린 아이들의 솔직한 자기고백은
끝없는 컴컴한 터널을 어렵사리 지나는
십대에게 자그마한 길잡이등불이
되어줄 만하다.

강지원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10대의 자유, 10대의 사랑

틴러브, 첫사랑의 순수함에 대하여



값 8,000원



tel / 02)511-1891, 512-1891
fax / 02)511-1244
e-mail / min7gi@chollian.net